

환 경 부  
보도자료

- ☐ '05. 8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2 쪽

환경정책실  
화학물질안전과

유제철 과 장  
김정호 서기관

전화  
(메일)

02-2110-7953  
baikal@me.go.kr

,

, 가 가

- ☐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개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23개 업체(위반율: 70%)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실을 밝혀냈다.

○ 위반내역은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 물질 25건,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, 14건으로, 1개 업체당 위반건수는 약 3.5건이다.

- ☐ 이번 점검은 '05.4.1~9.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「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」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,

'05.3.23( )  
6.7( )

- ☐ 환경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7월 2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와 관찰물질 제조자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
## 〈 확 대 내 용 〉

구분	당 초	확 대
신고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규화학물질 수입자</li> <li>· 유독물 수입자</li> <li>· 관찰물질 수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당초 +</li> <li><b>신규화학물질 및 관찰물질</b></li> <li><b>제조자</b></li> </ul>

- 그간 환경부는 자진신고제를 알리기 위하여 6천여 수입업체에 2차례 **안내문**을 보내고, 9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수입업자를 직접 만나 **설명**하는 등 자진신고제 알리기에 열정을 쏟은 결과,
  - 7월말 현재 **신규화학물질 27건, 유독물 47건, 관찰물질 34건** 등 총 **108건의** 불법 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가 접수되었다.
- 환경부는 앞으로도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남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**보다 많은 업체가 자진신고를**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지만,
  -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**전방위적인 특별단속**을 실시하여 **위법행위를 신고하지** 업체는 「엄정한 법질서 확립」 차원에서 **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** 계획이다.